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3. 9 (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마통, 사흘만에 1.3조↑… 현기증 장세속 '빚투' 우려
동아일보 https://zrr.kr/36EHd0

5대 은행의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7227억 원으로 2월 말(39조4249억 원) 이후 불과 닷새 만에 1조2978억 원 증가, 이는 한도가 아닌 실제 사용된 대출 잔액
반면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944조1025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7872억 원 줄었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 자금인 요구불예금도 같은 기간 8조5993억 원이 줄어든 모습

환율 1470원 돌파에도...국내 은행권 '펀더멘털' 이상 없다
블로터 https://zrr.kr/1qXz10

최근 미국-이란 전쟁 발발로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을 돌파하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급증했으나, 국내 은행권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
과거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우리나라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고환율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새마을금고 올해 가계대출 못 늘린다
매일경제 https://zrr.kr/PiJVJT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가계대출 관리 대책에 새마을금고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0'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금융권 총량 관리가 도입된 이후 특정 기관에 신규 대출 순증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

네이버 평점 높은 식당, 대출이자 싸진다
서울경제 https://zrr.kr/gN6vxe

금융 당국이 네이버 평점을 잘 받은 식당이나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에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한도를 늘려줄 예정
대출 상환 이력이나 신용점수 등 금융 정보가 아닌 비계량 데이터를 활용해 자영업자들의 원활한 금융 거래를 돕겠다는 의도

"배당 늘리고 자사주 태운다"… 소각 기업 6배 급증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DAgn8v

자사주 소각 공시 기업 수는 지난해 6월 5개에서 12월말 32개로 6개월 만에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내 상장사들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개정 등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자본 정책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

與 주도 공청회 변수…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늦춰지나
서울경제 https://zrr.kr/tIBCne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주도로 25일 중복상장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
당초 한국거래소가 이달 중 발표하려던 중복상장 심사 가이드라인 발표가 지연되고 규제 수위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회사 상장을 추진해 온 기업들은 혼란

보험 대리점 내부 통제 위탁 보험사가 평가… 미흡할 땐 불이익
조선비즈 https://zrr.kr/tfVBXU

금감원은 상반기 중 보험 업계와 만나 GA 내부 통제 평가 지표를 마련할 계획
GA 내부 통제 현황을 보험사가 직접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미흡하거나 GA에 경영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면 원수사(보험사)의 K-ICS비율 산출 시 불이익을 줄 방침

보험업권 생산적금융에 40조 투자..8조는 국민성장펀드 지원
머니투데이 https://zrr.kr/LXtyuc

보험업권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40조원을 투자하고, 이 가운데 8조원은 국민성장펀드에 지원할 계획
특히 투자기간이 길고 장기적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투융자와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간접투자에 나설 계획

코인시장 다시 '극단적 공포' 진입
한국경제 https://zrr.kr/NUIeKO

가상자산 시장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 공포·탐욕 지수가 다시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떨어진 모습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이 확대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약해지며 단기 반등 기대보다 추가 하락을 우려하는 관망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확정 수순… 업계는 "시장 왜곡"
디지털타임스 https://zrr.kr/THPhUO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제한하고 약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이에 따라 수천억원 규모의 지분 매각 압박이 현실화될 전망으로, 업계에서는 경영권 위축과 시장 왜곡을 우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